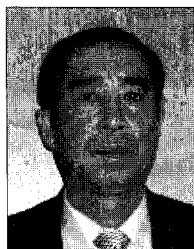


# 우리의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최재민  
협회 이사

3~4년마다 집회를 하고, 삭발하고, 단식하고, 우유를 버려야 만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다시는 봉건적 시대의 협상보다 현시대에 맞게 성숙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제도개선을 해야만 한다고 본다. 원만한 가격이 이뤄지려면 우선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면서 수요자(유가공업계)와 판매자의 유통마진을 적정수준에서 책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산자는 최대한 자급자족(自給自足)과 사양관리를 철저히 하여 생산 단가를 낮추면서 질 좋은 우유를 생산하여야 할 것이며, 수요자(유가공업계)는 깨끗하고 질 좋은 우유 더 맛있고, 먹기 좋게 만들어 소비자 기호에 알맞게 생산하여 박리다매(薄利多賣)를 통해 소비자가 큰 부담없이 우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기려면 몇가지 개선하여 상호 합의 하에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 전국단위 목장원유를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낙농선진국 뉴질랜드에는 폰테라(Fonterra)사는 2개의 유가공 협동조합과 낙농위원회가 합병하여 낙농가의 출자금으로 이뤄진 협동조합로서 모든 유제품을 생산에서 가공, 판매, 가격까지 조절하고 있으며; 호주에는 DA(Dairy Australia)라는 호주낙농청(ADC) 등이 통폐합하여 발족한 공동 서비스기관이 있으며, 연구, 개발, 정보서비스, 과학기술등등 지원하고, Murray Goulburn 협동조합 같은 곳에서 가공 판매 등을 함으로서 선진국은 낙농협동조합 체제로서 수출용과 내수용으로 구분하여 차등제로 원유가격을 지불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생산자위원회를 만들어 백색시유와 가공용으로 구분하여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하나의 유통구조로 원유 공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지붕 세가족이 한데 뭉쳐 하나가 되어 수급조절에 동참한다면 과잉과 부족이란 단어가 별 의미없는 밝은 미래의 낙농산업이 될 것이다.

**목장원유가격 연동제로 가야 한다.**

원유값은 통계청 발표 생산비 100/5 이상 됐을때 원유값 인상안을 논의하게 되었지만 연동제는 100/5가 필요없이 매년 정기적으로 같은 날자에 통계청 발표 비목을 검토하여 생산비가 오르면 올려주고 내리면 내릴수 있는 이러한 기구를 만들어 제도화 해야 한다고 본다.

우유값 연동제를 실시하려면, 우선 정부의 총계청 자료를 온 국민이 믿을수 있는 올바르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항목별로 조사함에 있어 낙농가의 100%를 다 끌고 갈수는 없지만 적어도 70%는 끌고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생산비를 구해야 할 것이며, 농가마다 유사비가 천차만별(千差萬別)이기에, 특히 자가 노력비, 기구기계 감각삼각비, 쿼터 구입 및 소입식비 용자에 대한 감각삼각비 등등 세심한 비목관리와 적용이 필요하다.





기준 생산비를 적정수준에 맞추어 기틀을 잡는다면 이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 이번 기회에 생산자, 수요자, 정부 모두 목장 원유가격 연동제 실시에 동의 하였으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 다시는 집회시위를 벌이고, 밥 굶고, 우유를 버리는 아스팔트 낙농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 원유가 산정체계개선을 조속히 마무리져야 한다.

1억 여원 들여 용역하여 만든 원유가 산정체계를 기본으로, 소위에서 어렵게 합의점을 찾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갖고, 모든 절차는 끝났으나 구제역이 발생하는 바람에 원유가 산정체계는 표류하고 있다. 수요자와 생산자가 재 정비하여 원유가 산정체계도 마무리 지어서 낙농가 사기를 복돋아 주고, 소비자가 원하는 저지방 우유를 생산하여 국민 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낙농인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2008년도에도 집회하고, 머리깎고, 단식하고, 납유거부까지...

왜 매번 똑같은 고행을 되풀이 해야만 하는가? 어느 누구는 목숨이 열개라도 되는지 아는가?

다 똑같은 낙농업을 하는 낙농인이다.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단결심을 보여 줘야 하거늘 겉과 속이 다른 수박같은 사람이 너무도 많은 걸 보았다. 본인이 아니라고, 본인이 굶지 않는다고 쉽게 말해서는 안된다.

부디 소원이다. 낙농가 모두가 이제라도 비난만 하기보다 하나로 뭉쳐 대한민국 낙농을 모두가 주도해야 한다.

미래가 있는 낙농, 희망이 있는 낙농, 후계자가 줄줄이 이어가는 낙농, 누구나 하고 싶은 낙농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

### 정부와 진흥회, 소비자, 수요자(유업체), 협회, 언론 관계자 모든 분들께

원유가 협상에 협조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6,000여 낙농가 여러분!

이번 원유가 현실화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하여준 낙농인 가족들의 모습에 무한한 동지애를 느낀다.

낙농가 모두의 힘이 있었기에 소기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우리의 살길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누가 우리 문제를 대신하여 해결 해주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 한지붕 세가족이 하나가 되도록 하자. 앞으로도 국민 모두에게 안정적으로 우유를 공급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